

시간의 주소 , 소공동 112 번지

그 공간의 사람과 사물들 02 (소공동 양복점)

그 공간의 사람과 사물들 02

소공동 양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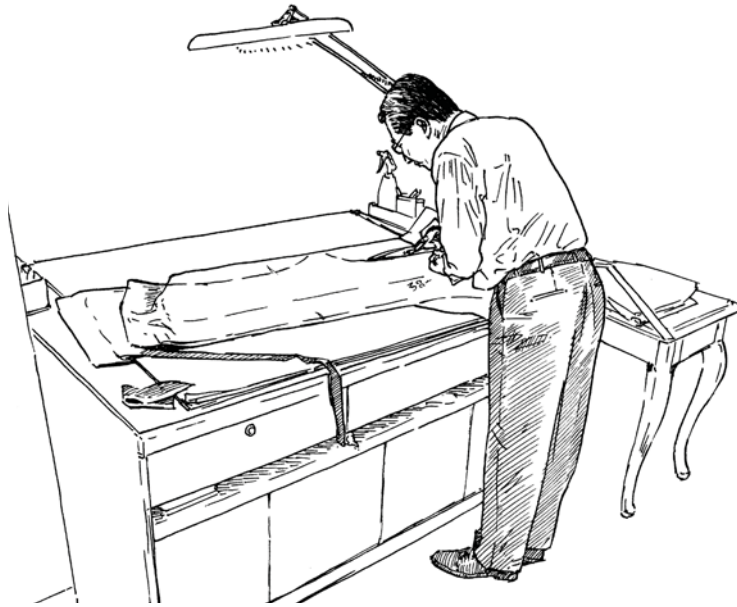
해칭양복점의 산증인
한창남 재단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의모는 흡사 몸에 꼭 들어맞는 맞춤양복의 철학을 온몸으로 표현한 듯 하다. 해칭양복점의 사장이면서 재단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재단사는 고객의 신체를 측정하고(체촌) 나서 패턴을 작도하고 원단을 패턴대로 재단하여 제작공장으로 보낸다. 1차로 가봉(가조립)된 양복을 주문한 고객이 입어보고 수정할 부분을 체크하여 본작업으로 넘긴다. 좋은 맞춤양복이 나오려면 옷을 입는 사람과 재단사 그리고 공장 제작자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한다. 옷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신체의 부분 부분의 치수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신체의 치수를 기록하는 양식지

양복을 만들기에 앞서 개개인 신체 측정하는데 기본적으로 15군데 이상의 치수를 기록해 놓는다. 양식지에는 신체 유행별 도식이 다양하게 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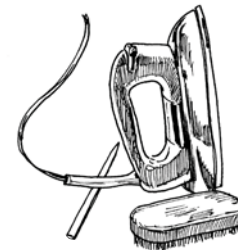
양복 상의를 제작하는
해칭 양복점 공장의 한상범 씨



다리미, 구두솔, 테나무 주걱

다리미는 케네럴 일렉트릭사의 제품으로 유일한 단점이 고장 나지않는것 이라고 한다. 구두솔은 울감을 다릴때 물을 찍어 바르기 위한 것,테나무 주걱은 옷감을 가림착하는 단계에서 풀을 바르기 위한 도구다.

자켓제작을 담당하는 한상범씨. 수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양복 공정은 한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책임지는 방식을 따른다. 기성복은 같은 양복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분업화공정이 이뤄지지 않. 맞춤양복은 개개인별 신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적용시키기 때문에 1인 제작시스템이 보다 적합하다. 자켓을 제작하는데는 이틀이 꼬박걸린다. 인체의 상반신은 움직임의 변화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계산하여 제작된다. 한창남씨는 양복을 반세기동안이나 만들어온 분이다. 자켓의 핵심부분인 소매를 연결할때는 마음에 들때까지 몇번이고 라인을 수정하며 불었다 떼었다를 반복한다. 그광경을 보고 있으면 숙연해진다.



1929년 부터 계속된 양복점의 역사

해창양복점



표창장과 명장증서

김영삼 전대통령이 전달한 표창장과 노동부장관이 전달한 명장증서다. 명망있는 양복점의 승씨도 알수 없거니와 대통령이나 유명인사들이 자주왕래하는 양복점이라는 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맞춤액자에 넣어 쇼윈도우에 자랑스럽게 비치되어 있다.

1929년에 창업한 해창양복점은 이용수씨가 설립하고 둘째 아들 이순신씨가 가업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명성을 이어가고있는 정통 맞춤 양복점이다. 2대째인 이순신씨는 서울대 상대를 나온 당시의 상식을 깨는 인물로 현재의 대표인 한장남씨와는 72년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이순신씨는 안타깝게도 2006년에 세상을 떠났다.

해창은 고급양복점 중에서도 단연 이름난 곳이라 그동안 이곳을 다니간 유명인사는 대통령에서 부터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님, 연예인등 화려한 고객층이 있다. 주문량이 많을때는 순서에 밀린 고객들이 바로 옆집으로 가는 바람에 그곳도 덩달아 장사가 잘될정도였다고 한다.



양복 바지를 제작하는
해창 양복점 공장의 변희복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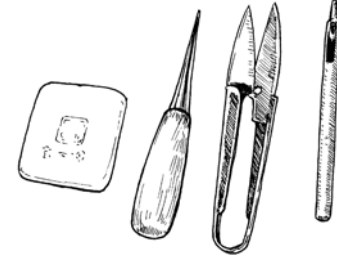
바지제작을 담당하는 변희복씨.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바지는 2벌만. 상의에 비해 시간은 덜 걸리지만 단순하지 않은 작업이다. 의외로 바지에는 많은 부속이 들어가는데 주머니만 해도 앞주머니, 뒷주머니 비밀주머니 등 다양하다. 얼핏 똑같아보이는 바지인것 같지만 손님의 취향에 따라 뒷주머니의 뒷개형상에서부터 밑단의 접는형식 주름의 갯수등 각각의 변화요소가 가득하다. 왼쪽과 오른쪽다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부분을 뒤집어서 반대쪽바지 속으로 쪽 집어넣어 꼬맨 후 뒤집어 빼내는 과정은 보고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마술같다.



뒷주머니 뒷개 본

이 종이조각들은 바지 뒷주머니의 뒷개의 모양을 잡는 모양지이다. 밑달모양의 뒷개에서 가운데만 있는것 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갖추어놓고 있다.

가봉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맡고있는
해창 양복점 공장의 황옥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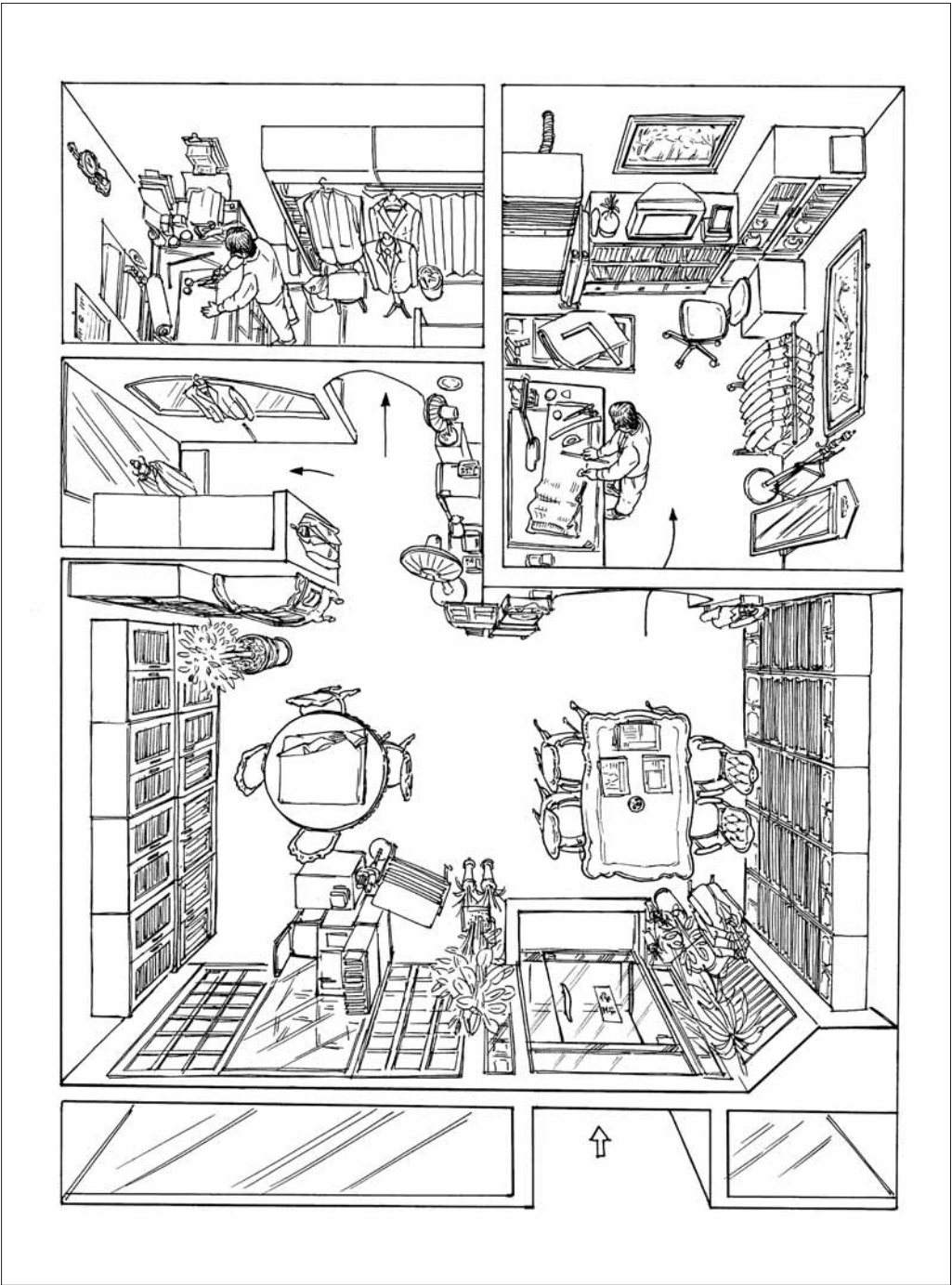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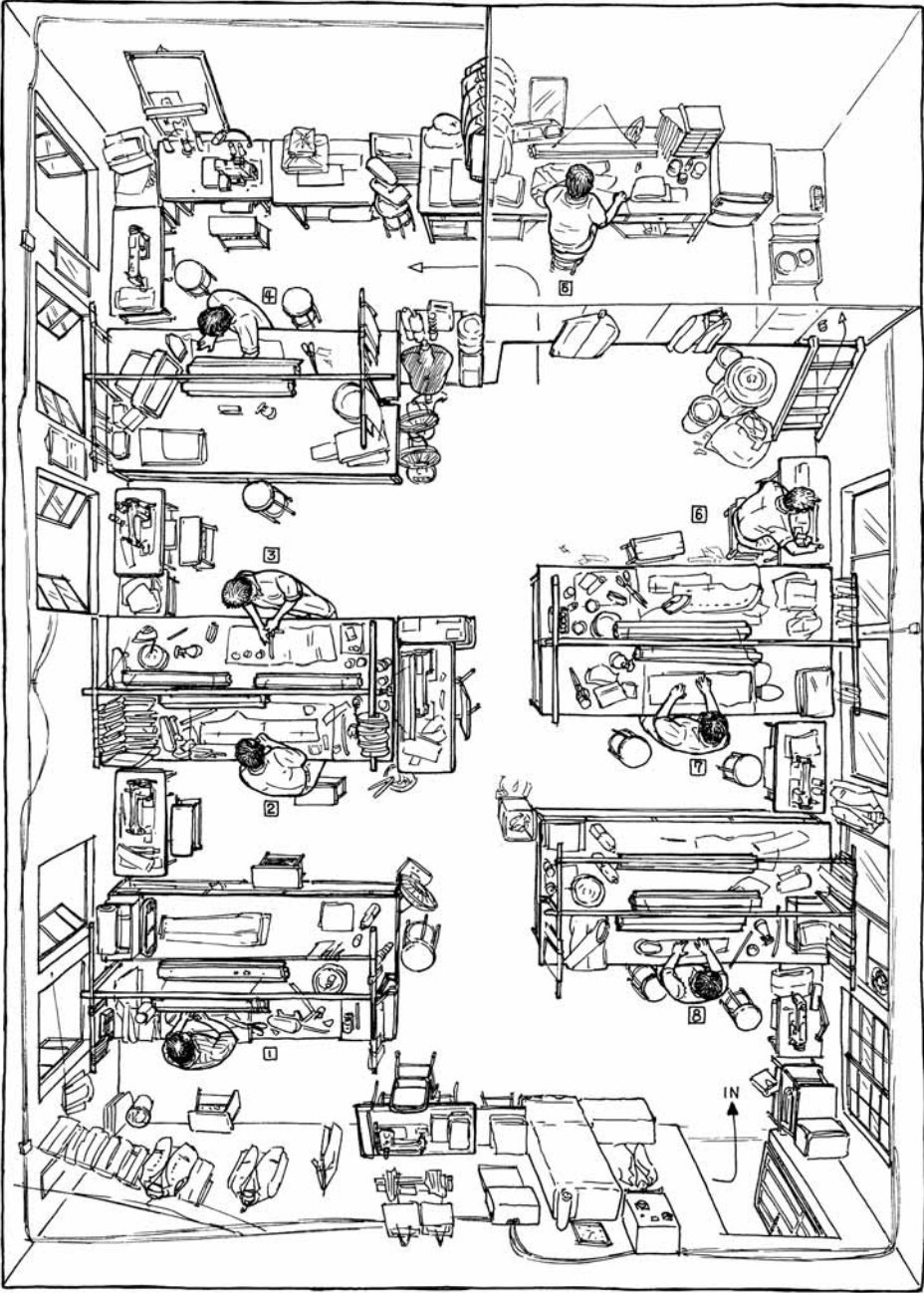
초크, 송곳, 쪽가위, 핀지

이초크는 일반 분말초크와는 다른 파라핀 초크로 옷감에 다림질을 하면 자국이 남지 않는다. 송곳은 옷감에 자국을 내거나 실밥을 제거할때 꼭 필요 사용한다. 쪽가위는 실밥을 직품때 사용. 핀지는 말지로 매워서 옷감에 구멍을 낼때 사용한다. 단추구멍 한쪽끝의 둥그란 부분을 만들때도 사용한다.



제작의 맨 처음과 끝인 가봉과 마무리 바느질을 담당하는 황옥연씨. 갓 재단되어온 옷을 시침실로 재빠르게 바느질하여 가봉하는데는 한시간 반 남짓 걸린다. 그 손놀림은 워낙 빨라서 카메라 셔터도 잡아내기 힘들다. 가봉한 옷은 고객이 입어본후 수정하기위한 포인트를 찾기위해 가조립하는 단계로 맞춤양복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재단사가 수정할 부분들을 표시한후 본작업이 끝나고 나면 가봉작업과는 정반대로 세심한 작업이 남아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침 바느질로 여러겹의 원단중 필요한 부분만을 플라 고정 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감각적인 스티치를 넣는일 그리고 단추구멍 주변을 바느질로 보강하고 단추등의 부품들을 붙이는 일이 마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다.







1924 **해창명품양복점**



大韓服裝史

